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4 호

2023년 1월 2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2023 : 한국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신청 안내
2. UNGC Open Day 2023 :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개최 및 신청 안내
3. [Monthly Insights 1 월호] '2023년 글로벌 ESG 전망' 요약

■ 본부 소식

1. 『제 12 차 유엔글로벌콤팩트-액센츄어(Accenture) CEO Study』 발간
2. 직장 내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세계 여성의 날(3/8)을 향한 카운트다운' 런칭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근로복지공단

■ SDGs 소식

[SDGs 솔루션] 셀작(Seljak) - 자투리 직물을 재활용 해, 새로운 담요를 만들다

■ UNGC & 회원사 뉴스

1. 카카오뱅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인터넷 은행 최초”
2. 넷마블, 한국 게임회사 최초 'UNGC 가입'... "ESG 경영 강화"
3. 증권업계 올해에도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
4. SK, UAE 국부펀드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맞손
5. 과일포장,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선물세트도 '친환경 소비' 확산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Open Day 2023 : 한국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신청 안내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UNGC 한국협회는 회원사 담당자분들을 초청하여
2023년 UNGC 주요 계획 및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UNGC 운영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ESG 경영 관련 다양한 활동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UNGC 「OPEN DAY」 개요

- 일시: 아래 3개 날짜 중 택일 ※ 회차별 50명 선착순 마감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 2023. 1. 31 (화) 14:00 - 15:30 [마감]
 - 2) 2023. 2. 14 (화) 14:00 - 15:30
 - 3) 2023. 2. 28 (화) 14:00 - 15:30
- 장소: 온라인 진행 (신청자 대상 Zoom 링크 송부 예정)
- 대상: UNGC 회원사 실무진 (기업/기관별 최대 3인)
- 내용: 2023년 UNGC 주요 활동 및 참여 안내, 본부 정책 변경사항 공유, 질의응답, 회원사 네트워킹 등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이 안 될 경우, 참석희망 날짜와 함께 소속(기업·기관명 및 소속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적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50/49,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2. UNGC Open Day 2023 :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개최 및 신청 안내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23 UNGC 「OPEN DAY」 안내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온라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확산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시작과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UNGC 가입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초청하여 UNGC 회원사 혜택,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UNGC 「OPEN DAY」 개요

- 일시: 아래 2개 날짜 중 택일
 - 1) 2022. 2. 9 (목) 14:00 - 15:30
 - 2) 2022. 2. 23 (목) 14:00 - 15:30
- 장소: 온라인 진행 (신청자 대상 Zoom 링크 송부 예정)
- 대상: UNGC 가입 관심기업 (기업/기관별 최대 3인)
- 내용: 2023년 UNGC 주요사업 및 회원사 혜택, 가입절차 및 연회비 정책, 이행보고서(COP) 작성 안내, 질의응답, 회원사 네트워킹 등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이 안 될 경우, 참석희망 날짜와 함께 소속(기업·기관명 및 소속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적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02-749-2150/49,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Monthly Insights 1 월호] '2023 년 글로벌 ESG 전망' 요약

2023 글로벌 ESG 전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23 년의 첫 Monthly Insights 1 월호를 통해, 10 가지 키워드로 글로벌 ESG 전망을 내다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전(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유연철 사무총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 전쟁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ESG 경영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중소·중견기업 앞에 놓인 ESG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하여 산업계, 그리고 정부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이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라는 소식,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직접 PPA 활성화를 위한 국내 RE100 시장조사' 결과 등의 소식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로는 OECD, UNESCO, IDB 의 '인공지능이 일터에서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리하였으며, 취리히 보험(Zurich Insurance Group)의 글로벌 다양성 우수 사례를 담았습니다.

1. <2023 년 글로벌 ESG 전망 10 가지>

- | | |
|----------------------|--------------------------|
| ① 규제 및 공시 대응노력 구체화 | ⑥ 공급망 혁신 요구 가속화와 중소기업 지원 |
| ② ESG 데이터 관리 강화 | ⑦ 공정한 전환 이행 강조 |
| ③ Net Zero 실질적 이행 강화 | ⑧ 임금 공정성 부각 |
| ④ 에너지 전환 지속 | ⑨ 임직원 내재화, ESG 기업문화 |
| ⑤ 생물다양성에 주목 | ⑩ 어려운 경제상황 하 청렴성 강조 |

① 규제 및 공시 대응노력 구체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다양한 ESG 규제 및 공시 흐름이 가시화되며, 올해에는 기업들의 대응 노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에서는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운영되고,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표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급망 실사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도 관련 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부터 상장사들은 단계적으로 기후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SSB의 최종안이 발표되면 많은 국가에서 이를 기반으로 제도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도 글로벌 기준 및 국내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ESG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국내외 규제 및 공시 대응 노력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도 글로벌 기준 및 국내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ESG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국내외 규제 및 공시 대응 노력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이번 Monthly Insights 를 통해 2023 년 중요 글로벌 이슈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10 가지 전망을 살펴보았을 때,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다양한 ESG 규제 및 공시 흐름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문가 인사이트

2023 ESG 경영, 몬주익 언덕을 넘어 도약하십시오



유연철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Q. ESG는 현재 국내외 산업계의 최대 화두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전쟁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ESG 경영의 필요성 또는 유익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생각과 올해 ESG의 전망에 대한 생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보다는 감속이 되면서도 ESG 경영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ESG 경영은 기후정의라는 당위적인 측면과 지속가능성 공시 등 기업 규제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ESG 경영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제2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에서 1.5°C 제한을 위한 Net Zero가 재천명되었고,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진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보로 인해 ESG 경영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그렇다면 ESG 회의론이 왜 나오는지 배경을 살펴보면, 물론 에너지 위기나 미-중 간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균형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ESG 경영환경이 악화된 측면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ESG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즉, ESG를 하나의 일시적인 트렌드나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ESG에 대한 조직문화가 부족한 데 기인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명확한 공시 표준이 없는 가운데 혼란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상기 언급한 사항들을 고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에는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의 기후공시, 우리 정부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으로 ESG 제도화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ESG 경영을 견인해가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ESG라는 용어가 코피아한 UN사무총장이 주도한 책임투자원칙(PRI)을 통해 2006년에 등장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여러 금융기관들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보고서의 제목을 풀어 쓰자면 'Those who care for others is to win' 즉, 다른 것(E(환경) - 지구 / S(인권·노동) - 사람 / G(거버넌스) - 반부패 등 조직 대상)을 배려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ESG 경영의 근본이고, '승리'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역시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한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의 가장 힘든 맨 마지막 구간에서 몬주익(Montjuic) 언덕이라는 제약을 직면했을 때 일본 선수를 제치고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금 우리 앞의 제약이 몬주익 언덕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 언덕을 누가 더 빨리, 힘차게 넘어서서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여건과 과제 속에서도 더욱 힘을 내어 ESG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문가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전(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유연철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 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ESG 와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그리고 반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심도있는 이해 및 접근을 언급하였으며, 현재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제약을 몬주익 언덕에 빗대어 '언덕을 힘차게 넘어서서 갈 수 있는지가 관건' 이라 강조 하였습니다.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가 올해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의 최종 기준 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 ISSB가 기업 비즈니스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공개를 다루고 생물 다양성 및 기타 주제에 대한 기업 보고를 포함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규정을 올 안에 완료함에 따라, 기업에 의무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인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의 규제기관은 ISSB 표준 발표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ISSB, 공시기준 마무리..."몇 달 내 확정"

매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의 기업 지속가능성과 기후 관련 공시의 최종 기준 규정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환경부가 원자력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내용의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했다는 소식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발표되었다는 소식 등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4. 본부 소식



유엔글로벌콤팩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례 회의 참여



직장 내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세계 여성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 런칭

본부 소식으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례 회의 참여 소식, '세계 여성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 프로그램 런칭 소식 및 2022년 UNGC 10대 성과 발표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5. GEK(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



[OECD, UNESCO, IDB]
인공지능이 일터에서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취리히 보험(Zurich Insurance Group)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다양성 프로젝트인 Gender Equality Korea(GEK)의 콘텐츠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 콘텐츠로는 OECD, UNESCO 및 IDB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AI 시스템이 여성의 취업 기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직장에서의 직책, 대우 및 지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고, 취리히 보험(Zurich Insurance Group)의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목표 설정과 이행 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희원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제 12 차 유엔글로벌콤팩트-액센츄어(Accenture) CEO Study』 발간



가중되는 혼란에 경각심을 가지는 기업들, CEO 들은 지속가능성을 수용하여 장기적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려 한다.

본 연구는 UNGC 와 액센츄어에서 진행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CEO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다수의 CEO 들(93%)이 10 개 이상의 동시다발적인 비즈니스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87%는 현재의 혼란 수준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역풍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98%)는 기업 역할의 핵심이 지속가능성추구라는 데 동의하며, 이는 연구를 진행한 지난 10 년 간, 무려 15%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 12 차 UNGC-Accenture CEO Study 는 128 개국, 18 개 산업에 걸쳐 2,600 명 이상의 CEO 를 대상으로 진행한 130 건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2007 년 CEO 스터디 프로그램(CEO Study Progrm) 시작 이래, 개발도상국 출신 CEO 그룹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CEO 들은 위태로운 다자주의와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기후 변화로부터 야기된 복합적 딜레마가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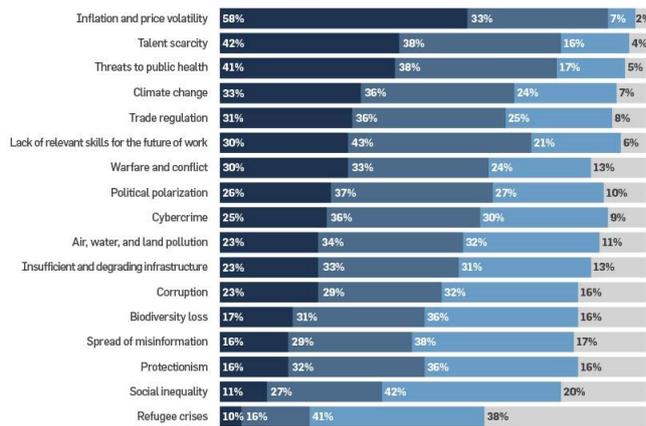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분쟁, 에너지 고갈, 인플레이션, 불황의 위협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올해의 연구는 CEO 들이 세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위기에 탄력적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다중 충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문제 - 극심한 기후 변화부터 확대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현재 취하는 행동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CEOs ARE FACING A MASSIVE AMOUNT OF UNCERTAINTY

Most CEOs are experiencing 10 or more simultaneous challenges to their business

■ HIGH IMPACT
■ MODERATE IMPACT
■ LOW IMPACT
■ NO IMPACT



이러한 과제가 쌓여감에 따라 CEO 들은 기후변화나 사회·정치적 갈등과 같은, 전통 기업활동 영역 밖에 놓인 문제들을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목표 달성 기간이 8 년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 세계 CEO 의 43% 가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지속가능성 노력이 저해된다고 답했으며, 개발도상국 CEO 들의 경우 그 응답률(51%)이 훨씬 높았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설정한 넷 제로 목표를 조사할 때, 엑센츄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소율을 두 배로 늘리지 않으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CEO 들은 여전히 SDGs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각자의 산업에서 공유된 이해관계자 가치와 경쟁 우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혁신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재구성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EO 의 3 분의 2(66%)는 자사가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전략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솔루션을 이용한 기술 혁신을 통해 기본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며, 천연 자원과의 연결점을 재평가하고, 지구 위험 한계선을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피터 레이시(Peter Lacy) 액센츄어(Accenture) 글로벌 지속 가능성 서비스 책임자 겸 최고 책임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실패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을 혁신하고 향후 10년 동안 변화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지속가능성을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CEO 들은 회복탄력성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지만, 한 리더의 회복탄력성은 또 다른 리더의 성장 기회이다.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복탄력성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기술 투자와 혁신의 새로운 물결은 분명 SDGs 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CEO 들은 또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성장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CEO 들은 이미 지속가능성을 위한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63%),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집 강화(55%), 재생에너지원 투자(49%)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 가까이(49%)가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40%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R&D 자금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 들은 인터뷰에서 과학 기반 기후 목표 설정과 인력 다양성 증진,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가시적인 산업 파트너십 및 공급망 강화, 그리고 생물다양성 향상을 기업의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CEO 들은 정부의 정책변화가 장기측정가능목표를 표준화된 ESG 보고체계, 글로벌 시장의 탄소배출 및 지속가능 비즈니스에 대한 인센티브로 우선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좌절에도 희망의 여지는 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함으로써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비즈니스 센스이기 때문이다.”

INGREDIENTS FOR RESILIENCE

To build true resilience, CEOs must embed protections across their business – in their strategy, workforce, supply chains, and greater ecosystems

- STRATEGY
- WORKFORCE & ORGANIZATION
- SUPPLY CHAIN & DATA
- ECOSYSTEM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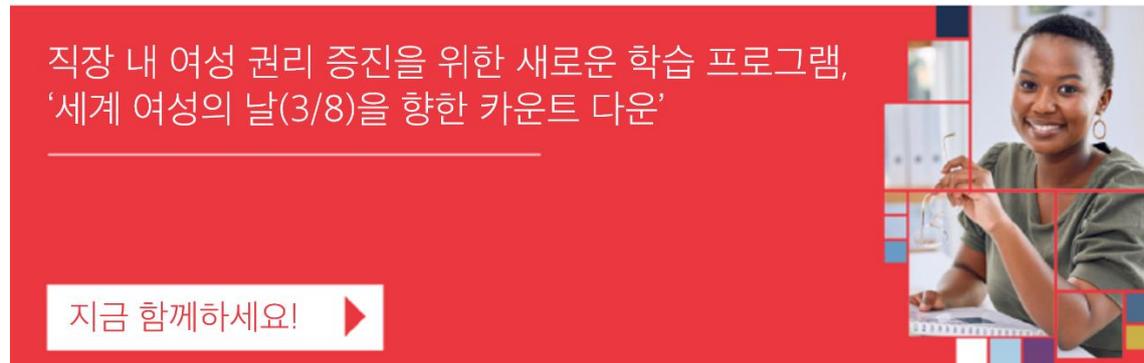


CEO 스터디 프로그램(CEO Study Program)

CEO 스터디 프로그램(CEO Study Program)은 유엔과 민간 부문간의 약속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자 UNGC 와 액센츄어(Accenture)사의 협력을 통해 개발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진전하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행위에 대한 검토이며, 연구물은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CEO,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직장 내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세계 여성의 날(3/8)을 향한 카운트다운' 런칭 (한국어 통역 제공)



직장 내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세계 여성의 날(3/8)을 향한 카운트 다운'

지금 함께하세요! ▶

매년 세계 여성의 날, 전 세계 기업들이 성평등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메시지들은 여성과 여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일년 중 3월 8일 뿐 아니라 직장, 그 너머에서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성평등 증진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직장 내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6 주간의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 '세계 여성의 날을 향한 카운트다운(Countdown to International Women's Day)'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혜택

-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글로벌 멤버가 되어, 주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언어(영어,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한국어**)와 시간대로 제공되는 대화형 라이브 세션과 온디맨드 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산업 또는 분야에 관계없이, 성평등을 위한 기업 활동이란 어떤 것인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p>키오프 (온라인 강의)</p> <p>아카데미 이-러닝 코스 『성평등: 기업 및 기관이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법』</p> <p>30분</p>	<p>1주차 (온라인 워크샵,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p> <p>아카데미 지역별 교류 세션 『성평등을 위한 목표 설정』</p> <p>2월 1일 오후 3시(1AM EST): 중소기업 대상 2월 2일 오후 3시(1AM EST) 다국적 기업 대상</p> <p>90분</p>	
<p>2주차 (온라인 강의,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p> <p>아카데미 체인지메이커 시리즈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확대』 2월 9일 오후 6시(4AM EST)</p>  <p>디날리 페이리스(Dinali Peiris) MAS Holdings HR 디렉터</p> <p>30분</p>	<p>3주차 (온라인 강의,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p> <p>아카데미 체인지메이커 시리즈 『성평등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 2월 16일 오후 6시(4AM EST)</p>  <p>마틴 오치엥(Martin Ochien'g) Sasini PLC 매니징 디렉터</p> <p>30분</p>	<p>4주차 (온라인 강의,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p> <p>아카데미 체인지메이커 시리즈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편견과 맞서는 방법』 2월 23일 오후 6시(4AM EST)</p>  <p>블랑카 트레비뇨(Blanca Treviño) Softtek Mexico 매니징 디렉터</p> <p>30분</p>
<p>5주차 (온라인 강의,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p> <p>아카데미 딥-다이브 시리즈 『부당함에 맞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3월 2일 오후 6시(4AM EST)</p> <p>90분</p>	<p>6주차 (온라인 강의)</p> <p>아카데미 이-러닝 코스 『성평등 증진을 위해 남성 옐라이(male ally)가 되는 방법』 3월 1일 선공개되는 강의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p> <p>90분</p>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회원사 실무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문의: 박희원 연구원, 070-4327-9767/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을 틈새 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진정한 '노동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사회와 노동의 다변화를 담아 전통적 노동자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여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진정한 희망 버팀목'으로서 국민에게 환영 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접목한 전개 등 사회적 책임 실현 공로를 인정 받아 사회책임 부문 사회공헌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지속가능경영 선도 및 UNGC 10대원칙 확산 노력으로 2023년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LEAD 그룹에 선정되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ESG 가치창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노동복지 허브'라는 비전 하에 △일하는 사람 노동복지 보장률 78%,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사회적 가치지수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 등을 경영목표로 한 COMWEL ESG 경영을 노사공동으로 선포하고, 공단 ESG 경영 전략 및 계획 수립, 기타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COMWEL ESG 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ESG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영역을 기준으로 '환경경영체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등 14개, '노동 및 인권, 다양성, 산업안전' 등 14개,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윤리경영, 정보공시' 등 12개, 총 40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진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공단의 ESG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COMWEL ESG 평가모델 개발 및 진단

COMWEL ESG 평가모델 항목 구성

- 환경(14개): 환경경영체계(4), 기후변화 대응(2), 에너지(4), 폐기물(2), 오염물질(2)
- 사회(14개): 공단 업역(1), 노동(4), 인권 및 다양성(3), 산업안전(2), 동반성장(2), 지역사회(1), 정보보호(1)
- 지배구조(12개): 이사회 구성(3), 이사회 활동(3), 윤리경영(2), 정보공시 형식(2), 정보공시 검증(1), 공통 일반(1)

COMWEL ESG 평가 결과

구분	우수한 점	미흡한 점
E (환경)	환경경영 추진 기반, 환경경영 교육,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관리	환경경영 협업체계 수준, 에너지 자립화, 폐기물-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동 여부
S (사회)	신규 채용, 교육훈련비-복지후생비, 인권리스크 관리, 상생협력, 전략적 사회공헌	산업재해를 변동 수준(과거 5년간 공단 내 산업재해 추세)
G (지배구조)	사외이사 전문성 수준, 사내이사 출석을 수준, ESG 정보공시 방식 수준	전체 이사 출석률 수준,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여부

또한, 내부 임직원들에게 ESG 경영의 필요성과 실천의지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교육, 사이버연수원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고경영진의 현장경영 활동 시 ESG 경영 추진사항을 전파하고, 세부 실행과제 및 소속기관 ESG 경영 실천 우수사례를 소식지와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ESG 경영체계 구축의 기본사항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와 연계하고, 사전정보공표 대상을 확대하여 총 20개 항목의 ESG 경영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공시(20개 항목)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온실가스 감축실적 ALIO	사회공헌활동 ALIO	이사회 회의록
에너지사용량 ALIO	인권경영 ALIO	자체감사부서 현황
폐기물 발생량 ALIO	동반성장 평가 결과 ALIO	장기제도 운영현황
용수사용량 ALIO	개인정보보호 ALIO	징계처분결과
환경법규 위반 현황 ALIO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현황 ALIO	청렴도 평가결과
지공예 자동차 현황 ALIO	직원 채용정보 ALIO	
녹색제품 구매실적 ALIO	안전등급제 평가결과	
친환경 추진 실적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Bottom-Up 방식의 직원이해도 제고 활동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유관기관·협력업체 간담회, 공공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의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과 외부 전문성의 결합을 통한 ESG 경영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ESG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공단 고유의 ESG 전략을 고도화하여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3. 사례(1)

○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일자리 위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책으로 실업충격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보험체계를 제공하여, 실직 시 생계위협으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까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를 시작으로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기반의 고용보험체계 전환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서면계약 관행 미정착과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2022년 12월말 현재 누적 피보험자 수가 168,723명에 달하고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첫발을 내딛는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를 확대하고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공단 직접 반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정부 24 사이트와 연계한 보험급여 청구, 산재 민원 무인발급 시스템 구축 등 산재보험 관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3. 사례(2)

○ 인권실사 준비와 인권존중문화 확산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2018)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권경영 활동을 이행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끝내고 2023년부터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년도에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한 비차별 조건 확대, 아동권리 존중, 위원회 목적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인권경영 규정과 인권경영선언문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흐름에 따른 신규 인권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실사 의무가 법제화되고 있는 국제동향에 발맞춰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권영향평가에 반영하고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개선해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인권실사 과정을 이행하고 보완해나가고 있으며, 전사리스크(인권침해 발생) 민감도 및 대응매뉴얼 전면개정, 인권경영 자율진단 지표(CHRIX)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 전개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기관 및 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추진기반과 체계도 중요하지만, 공단 내에 인권존중문화가 조성·확산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인권경영 추진방향 중 하나를 ‘인권존중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참여형 테마 캠페인을 통해 교육, 참여, 소통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공단만의 인권존중문화로 내재화되어 임직원의 인권의식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ESG 생태계 속에서 인권 관련 로드맵과 지침 등을 온전히 이행해나가고, 이를 협력·공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COMWEL 인권경영 HISTORY

2018 ~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사회보장 선도기관'을 목표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

12. 전사리스크(인권침해 발생) 전면 개편
11. '인권침해 조사구제 지침' 개정
가로세로 인권날말퀴즈 편찬
10. '22년도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실시
UNGC 인권실무그룹 3차회의 참여, 국제일자 메커니즘 공유
09. 인권익서 실태조사 실시
08. UNGC 인권실무그룹 2차회의 참여, 인권영향평가 현황 공유
0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JO' 인권경영 공시
06. '인권경영 규정' 개정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05. Do you know 아톰 인권? 캠페인
04. UNGC 인권실무그룹 1차회의 참여, 인권경영 현안 공유

2021

12. 세계인권선언의 날 지지준수 동참 기념
에서와~ 인권경영선언문은 처음보지? 캠페인
10. '21년도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실시
차별과 혐오표현 바로알기 편찬
인권익서 실태조사 전면개편 및 실시
09. 숨은 직장 내 괴롭힘 찾기 캠페인
08. 함께 만드는 성희롱 예방 포스터 캠페인
06.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2020

12.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언문 실천결의서
인권익서 실태조사 실시
11. 울산 인권존중협의회 실무회의
인권선언문 피플 헬프아웃
10. '20년도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실시
우리같이, 모두가 바디면 윤리-인권 문화협약(인권시각 키워드,
윤리-인권 스마트 라이브 퀴즈 대회) 개최
07.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02. 인권경영지표(CHRIX) 개발
01. 인권상담센터 신설

2019

12. 인권규정 퀴즈 행사
10. 인권경영 규정 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지침 제정
인권익서 실태조사 실시
09. 지역사회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
'19년도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실시
08. 인권존중 문화협약(인권영향 상영, 인권경영선언문 통사헬프아웃) 개최
07.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2018

11. 인권경영 책임관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10.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09.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18년도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실시

3. 사례(3)

○ 그린복지공단 캠페인 전개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 배출량이 높은 장난감 재활용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그린', 지역 내 사회경제적기업과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 및 어린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복지'를 테마로 하여 '그린복지공단'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기부 받아 울산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수리·소독하고, 이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발굴한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그린복지공단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4,857 명의 임직원이 13,217 개의 장난감을 기부하였고, 수리·소독 과정을 거쳐 선별된 장난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지원을 청원하는 “희망드림 기부청원”, 임직원의 개인다짐 실천과 기부를 연계한 “1+1 기부캠페인”을 통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홀몸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무료진료”, 생명나눔 활동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드림 헌혈캠페인” 등 공단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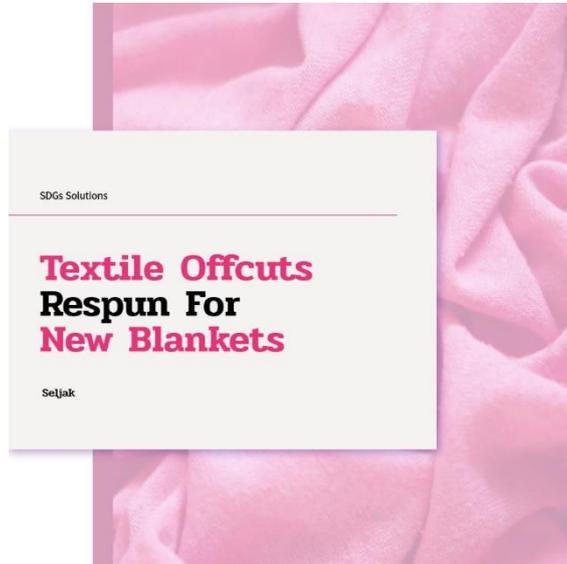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의 SDGs 기여 및 성과

 <p>3 GOOD HEALTH AND WELL-BEING</p> <p>한국판뉴딜유공경제부흥리포트(22년) 신재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p>	 <p>4 QUALITY EDUCATION</p> <p>대한민국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대상 6년 연속 수상(22년) 대국민 공개교육 콘텐츠 제작·공유 등</p>	 <p>5 GENDER EQUALITY</p> <p>3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39.8% 채용 전과정 여성 차별요소 완전 배제 여성관리자 핵심역량 교육 강화</p>	 <p>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p> <p>일자리창출유공 국무총리 표창(21년) SI-PIE 신재가이드 사업 추진 핵심사업 기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p>
 <p>13 CLIMATE ACTION</p> <p>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50%) RE100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민간협력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p>	 <p>17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p> <p>지속가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UNOC 인권, ESG 실무그룹 혁신도시 공공기관 네트워크</p>	 <p>2023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예정)</p>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SDGs 솔루션] 자투리 직물 재활용 - 셀작(Seljak)의 담요



셀작(Seljak) 브랜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직물을 재활용하여, 따뜻하고 패셔너블한 담요를 만듭니다.

2016년, 두 자매는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셀작(Seljak)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재활용 메리노 울은 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양모 공장의 공장 바닥에서 수거한 자투리 직물을 활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셀작(Seljak)의 담요는 70%의 재활용 메리노 양털과 30%의 폴리에스테르 재활용 알파카 양모 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작(Seljak) 담요는 실내외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산 공정에서 공장 바닥에 어떤 유형의 패브릭이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담요 각각에 고유한 모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담요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면 셀작(Seljak)에 반환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담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판매된 담요 10개당 1개의 담요를 멜버른에 있는 Asylum Seeker Resource Centre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셀작(Seljak)은 다른 유형의 섬유 폐기물로 담요를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 목적으로 32,000 달러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회사와 협력하여 재료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솔루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섬유 산업의 대부분은 주로 제조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자투리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의 추정치는 400억에서 1200억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셀작(Seljak)은 잠재적 가치 원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작(Seljak)은 현재까지 2,000kg의 섬유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전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의류용 직물의 약 15%가 제조 과정에서 낭비됩니다. 셀작(Seljak)의 모델은 양모 직물에서 이 수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른 직물에 대한 재활용 연구를 목적으로 추가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카카오뱅크,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인터넷 은행 최초”



- 카카오뱅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UNGC)에 가입했다고 밝힘.
- 카카오뱅크는 UNGC의 회원사가 됨에 따라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내재화할 계획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할 예정임.
- 카카오뱅크, 지난 3월 ESG 위원회 신설하고 ‘기술과 혁신으로 금융과 고객의 만남을 이롭게’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8월 발간한 바 있음.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번 UNGC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경쟁력을 확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는 혁신적 기술로 이뤄내는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생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함.

조선비즈

2. 넷마블, 한국 게임회사 최초 'UNGC 가입'... "ESG 경영 강화"



- 넷마블, 국내 게임업체 가운데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
- 넷마블은 이번 가입을 통해 UNGC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녹여내고 이용자와 주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공유해나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임.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UNGC 회원사로서 넷마블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함.
- 넷마블 ESG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영식 대표, "넷마블의 UNGC 가입은 성장과 공존의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이다.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한국경제

3. 증권업계 올해에도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



-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사회공헌활동, 친환경 전환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까지 총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친환경 전환에도 힘쓰고 있음
- KB증권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경영 이행을 위해 보유 중인 사옥 두 곳에 연간 16만 킬로와트시(kWh)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구축, 가동에 들어감.

메트로신문

4. SK, UAE 국부펀드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맞손



- SK 그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협력키로 함.
- 양사는 아시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기업 특성에 맞는 탄소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
- SK 는 지난 2021 년 6 월 아시아 민간기업 최초로 탄소감축 방법론과 탄소 감축량을 인증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설립했음.
- 무바달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최국인 UAE 의 자산 2840 억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로, 지난 2019 년 설립된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기업 에어카본 익스체인지(AC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함.

그린포스트

5. 과일포장,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선물세트도 '친환경 소비' 확산



-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100% 사탕수수로 만들어 토양에서 자연 생분해되는 바구니를 도입, 설 선물세트의 80% 이상을 친환경 선물세트로 기획했음.
- 이마트는 올해 수산·축산 선물세트에 '스티로폼 제로(0)' 전략을 도입, 포장재를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재질로 변경함.
-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소비자들이 선물 구매 시 고급스럽게 포장된 선물세트의 선호도가 높았다면, 최근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함.

한국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12 월 22 일부터 1 월 25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 곳입니다.

- 현대종합금속
- 주식회사 웨니테크
- 한국투자금융지주
- 대구도시개발공사

2. COP/COE 제출회원

12 월 22 일부터 1 월 25 일까지 5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농협은행
- 한국전력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2023 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COP 정책에 따라, 회원사는 매년 일괄제출기간(3 월-6 월)에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미보고 회원사 전환 후 6 개월 이내(7 월-12 월) COP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또한, 기존 서술 형식에서 표준화된 질문지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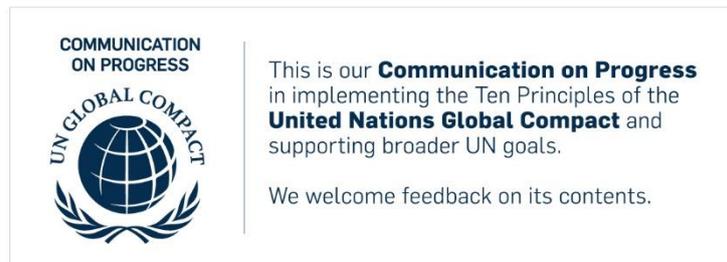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